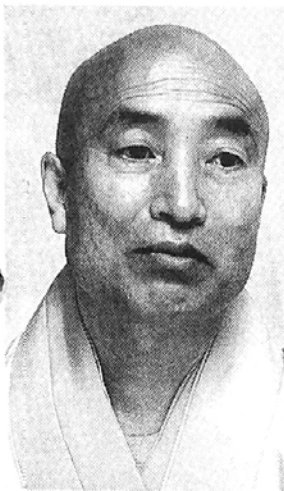


“종회 정상화 당면과제”

수요 인터뷰



“최근들어 종회가 몇차례유회됐습니다. 결국 126회 종회는 개최조차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부덕한 의장의 소치이며 지도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종회가 몇번 유회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종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주의를 떠나 불자사랑에 입각해 종단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도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고 투명하게 일을 풀지 않거나 정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상황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종회를 의도적으로

못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종정스님 사퇴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입니까.

▲종정스님께서도 종단사에 있어 많은 경험 있으시며 사리관단도 분명하십니다. 종정스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다는 진심을 모르고 정성껏 모시지 못해 사부대중께 죄송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승가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수행집단입니다. 이것이 곧 개혁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잘 지키는 것 또한 개혁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여러 현안들은

“승가는 수행집단... 정치 모방 금물” “종회-집행부 ‘수레바퀴 협조’ 필요”

방해해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부류가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몇몇 종회의원들이 종회의 유회가 집행부의 노골적인 유회작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종회를 유회시켰다면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종회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쪽만이 잘 굴러간다면

누구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원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종회의 역할이 대화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불문하고 현재 종단내 여러 현안들이 불거져나왔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요인이야 어떻든 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종회나 집행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격한 일, 생각하지 못한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이러한 분위기가 발생돼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종근 기자

신도교육·조직 체계화 ‘기대’

조계종 전법도량 규정안 마련 ‘의의’

조계종이 전법도량 지정을 위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전법의 해 주요사업으로 계획된 전법도량 지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법의 해 운영위원회(위원장 해창 총무부장)는 이예 따라 5월초 전법도량 지정 규정 공표 및 신청 공고, 지정을 위한 실사, 6월 전법도량 지정, 이후 지정기념 순회법회 봉행 등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규정(안) 마련은 무엇보다 신도입문 및 기성신도의 의무교육, 재적사찰 갖기 정착을 통한 ‘교육된 불자의 조직화’를 위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거점사찰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포교활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94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종교행사 참여율(월 1회 이상)은 21%로 1천만 불자 가운데 218만 명만이 정기적 신행으로 나타났다.

또 전법의 해 선포식 이후 추진했던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총무원은 탁발 방생법회

전국에서 불교세가 기독교세보다 열악한 지역은 5개 시·도로 분류된다. 서울의 경우 기독교인구의 77% 수준이다. 전북의 경우는 가장 심해 42% 수준에 머물며, 인천은 62%, 경기도는 90%, 전남은 72%에 머물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이들 지역에 거점사찰을 우선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기대를 뒷받침할 예산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말의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종회에 9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법의 해 관련 예산은 일체 상정하지 않았다. 전법의 해 지정이 종회 이후에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우선 시범사

수도권·전남북등 취약지역에 역점 대사회 역할 강화... 예산 마련 ‘과제’

등 각종 대형행사를 치르면서 전법의 해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벤트 위주의 총무원운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단이 차분히 목적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시범사찰보다 포교활동의 효과가 기대되는 거점사찰 지정 및 운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포교 중요지역과 취약지역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

정성운 기자

나라안이 운동 썩고 있다. 한보사태의 악취가 들쭉날쭉 심해지는데, 경주고속철 공사가 총체적 부실이라니 아연실색 할 뿐이다.

검은돈을 받고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마져 속이고 있는 정치인들. 그들의 모습이 고속철 부실공사와 다를게 무엇인가.

“한보축 인사를 만난적도 없다. 돈을 받은 일은 더더욱 없다. 하늘에 맹세코 깨끗하다.” 한보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은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다 검찰조사를 받고나면 돌변하고 있다.

“대가성 없

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변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정사건이 아니라 “불렀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망어를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읊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며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공을 취해 청백하여 간사스럽지 않으면 깨끗하게 사는 일이다.”

악취속에 義를 취한 두사람이 있다. 丁世均의원(47·국민회의).

정의원은 96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용남 전 한보사장이 건넨 로비자금 1천만원을 거부했다.

또 한 사람은 金漢鍾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앞어 두자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으나 더 이상 굶어서는 안되겠다 싶었다.”

이런 이들이 있어 진흙속에서 연꽃이 피나보다.

김종근 기자

목어

‘두 사람’

지 않으면 깨끗하게 사는 일이다.”

악취속에 義를 취한 두사람이 있다. 丁世均의원(47·국민회의).

정의원은 96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용남 전 한보사장이 건넨 로비자금 1천만원을 거부했다.

또 한 사람은 金漢鍾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앞어 두자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으나 더 이상 굶어서는 안되겠다 싶었다.”

이런 이들이 있어 진흙속에서 연꽃이 피나보다.

현 총무원 집행부의 파행과 부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찰운영의 투명한 재정확보보다는 전제하에 지정된 지역사찰은 이제 선심성 종권유지자금 및 음성적 자금의 본진지로 전락되고 있으며 주지인사정책의 혼란까지 일으

김종근 기자



수박보정의 제형, 소녀의 얼얼을 새긴 별등

“일체중생 무명벗자” 생명 축제

초파일 전통연등 재연 의미와 유래 신라 影燈 花랑의 기상·願 담아

등불이 찬란하기가 광명의 바다같다”는 〈불은사연등도량문〉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전통연등으로는 연꽃등, 수박등, 마늘등, 거북등, 화등, 어등, 수복등 만자등, 거북등, 자라등 등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국유사〉 〈동국세시기〉 〈열랑세시기〉 〈경국세시기〉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등만도 30여종류가 된다.

특히 〈삼국유사〉에 의하면 등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 영등(影燈)이 바로 그것. 영등안에 같이불을 만들어 종이를 잘라 말을 타고 사슴, 노루 등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 같이불에 붙여 놓으면 바람에 의해 빙빙 돌게 되며 밖으로 비추어 나오는 그림자를 보며 즐기는 것이다. 이 영등에는 삼국통일을 위해 미륵반가유상에 기원했던 화랑도들의 기상과 원광법사의 살생유택의 정신도

김종근 기자

봉축위 재현 전통연등

수박등, 어등, 용등, 북등, 새우등, 참외등, 마늘등, 석류등, 탐등, 종등, 꼬끼리등, 봉황등, 범룡등, 목어등, 석등등, 원앙등, 거북등

내포돼 있다.

또한 오신체를 먹지 말라는 뜻으로 마늘등, 한지를 이용 수(壽), 복(福)자 등을 새긴 수복등, 사물을 이용한 종등, 범고등, 목어등을 만들었다. 신분에 따라 등의 모습도 다양했다. 왕실에는 봉황등, 청룡등 황룡등을 달았으며 사대부들은 매향국죽 사문자를 그린 등을 달았다. 이 밖에도 지역이나 환경 등에 따라 수박등, 참외등, 모란등, 가마등, 향아리등 남산등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84년 전통연등 33가지를 재현했던 해국스님(열반종 총무원장)은 “전통등을 재현하는 것은 연등축제를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불사다”고 강조했다.

연등축제가 불교인만이 아닌 국민적 종교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전통등 재현은 주목할 만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근 기자

기자 회견 전문

제126회 중앙종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었습니다. 산적인 종단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종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유회된 것에 대해 종회의원으로서 사부대중 앞에서 참회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현 집행부는 또 공공연하게 종회를 유회시켰습니다.

4월15일 중앙종회가 성원미달로 또다시 유회되었습니다. 4월1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무부장 해창스님은 ‘다음주 개최예정인 제126회 임시종회에서 안전이 심의되지 않고 유회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사회언론에 종회유회 작전의 음모를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언행과 음모는 파행과 비리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현 집행부의 음모로 나아가 불교발전을 저해할 해종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종단의 이익을 대표하며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종회를 거듭 유회시킨 현 집행부는 사부대중에게 진상을 낱날이 밝히고 참회를 해야만 합니다.

중앙종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개혁불사의 도도한 흐름을 잇는 것입니다.

종정예하의 사퇴는 산적인 종단현안을 외면한 채 개인의 명예에 집착하여 종무행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집행부에 대한 질책임은 전 종도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질책을 경허히 받들고 종단현안 해결에 매진해야할 총무원 집행부는 오히려 종회를 유회시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종단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회의원들을 불평불만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이신 종정예하의 권위를 훼손하고 중앙종회를 무시하는 현 총무원 집행부는 개혁불사의 도도한 흐름을 방해하는 작태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자성하지 못하면 거듭 반민주적인 음모로 오늘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사부대중의 엄중한 경책을 모면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재차 강조해두는 바입니다.

현 총무원 집행부의 파행과 부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찰운영의 투명한 재정확보보다는 전제하에 지정된 지역사찰은 이제 선심성 종권유지자금 및 음성적 자금의 본진지로 전락되고 있으며 주지인사정책의 혼란까지 일으

김종근 기자